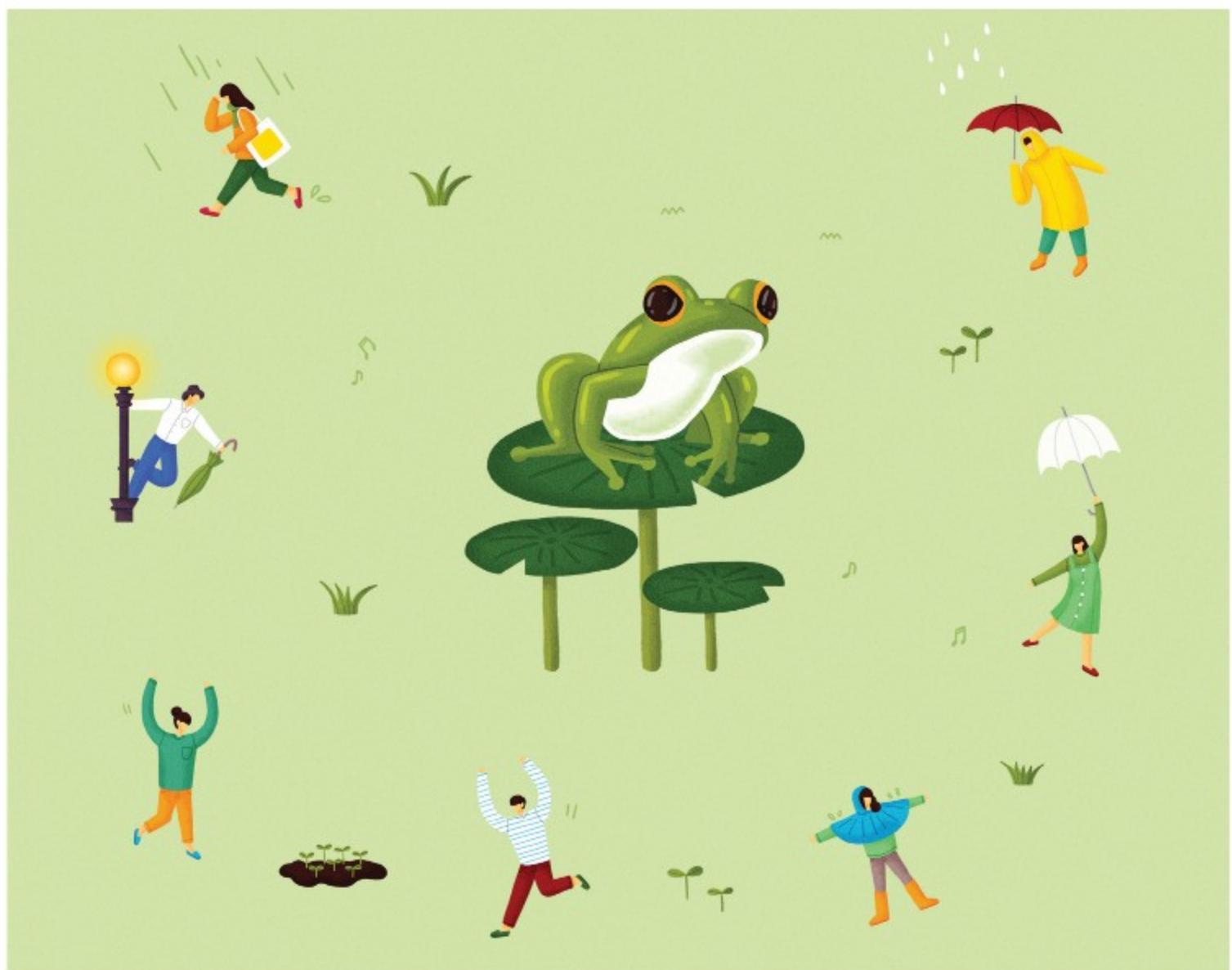


양양소식



2022. 3

Vol. 322



CONTENTS

04 기획특집
대한독립 만세!
양양에 울려 퍼진 우렁찬 함성

08 마을가는 길
양양읍 기정리

12 양양군청 IN & 人
세무회계과



카메라를 대보세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이란?



노로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연중 내내 발생하지만 겨울에 더 자주 발생하는데요,
 다양한 온도 변화를 잘 견딜 수 있는 바이러스의 특성,
 추운 날씨에 밀폐된 공간에서 머무르는 시간 증가로
 대인 간 전파력 높아짐 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집단 설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균 중 하나입니다.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①

식중독 예방



손은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씻기



물을
끓여 마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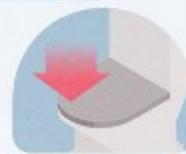
식재료는 깨끗한 물로 세척하기,
다른 식재료에 뛰지 않게 주의



음식은 충분히 익혀먹기,
어패류는 중심온도 85°C,
1분 이상 익히기

노로바이러스 예방법 ②

사람·환경 등 예방



화장실에서 설사 또는 구토했을 때에는
변기 뚜껑을 닫고 물 내리고,
주변을 철저히 소독하기



구토물은 소독액을 적신
종이타월로 5분정도 닦은 후 닦고
비닐봉투에 담아 밀폐하여 폐기하기



문고리, 수도꼭지 등
접촉하는 표면을
자주 소독하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조리하지 않고
증상이 나아진 이후에도
최소 2~3일간 공동생활 피하기

양양소식

Vol. 322

CONTENTS

COVER STORY

희망양양

- 4 기획특집_ 대한독립 만세! 양양에 울려 퍼진 우렁찬 함성
- 8 마을가는 길_ 양양읍 기정리
- 12 양양군청 IN & 人_ 세무회계과
- 15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_ 손양면 하왕도리



경칩(驚蟄)

의기양양

- 16 의정소식_ 의원 간담회 개최
- 18 향토사 이야기_ 관동읍지(關東邑誌)에 수록된
양양부 관아(官衙)에 대해 알아본다
- 20 YANGYANG NEWS

양양군 SNS 주소

- 블로그 : <http://blog.naver.com/likeyyang>
-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likeyyangyang>
-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likeyyangyang_official
-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yangyangcity_official/



열린양양

- 22 문화마당_ 이달의 책이야기 / 추천신간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24 건강 알리미_ 아이들을 노리는 봄철 감염병
수족구병 / 유행성이하선염
- 25 정보꾸러미_ 공공기관 행정정보 / 일자리 정보
- 28 공익광고

양양소식 · 322호

- | 발행일 2022년 3월 1일 | 발행인 양양군수
- | 편집인 기획감사실장
- | 발행처 양양군 Tel. 033-670-2103 Fax. 033-670-2276
www.yangyang.go.kr

양양군정소식지 「양양소식」은 월간 무료 구독지입니다.
구독은 tashidele90@korea.kr로 신청 바랍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기재)



3.1만세운동 유적비 앞 재현〈사진제공 : 양양문화원〉

대한독립 만세!

양양에 울려 퍼진 우렁찬 함성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만세운동은 일제의 지배에 항거한 우리나라 최대의 독립운동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우리군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도 규모나 내용에서 만세운동이 전개된 지역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곳 중 하나로 꼽힌다. 4월 4일을 시작으로 9일까지 1만 5천여 명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당시 군 인구는 3만 6천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시위 때 집집마다 한 사람은 나왔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만세운동의 열기가 뜨거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103주년 삼일절을 맞아 치열했던 양양 만세운동의 역사를 되새겨보자.

독립선언서, 만세운동의 불씨가 되다

고종 황제(高宗皇帝)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이석범 선생은 양양의 유림 10여 명과 함께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 경성으로 떠났다. 거리마다 전국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곡소리가 넘치는 가운데,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벌어진 만세운동을 직

접 목격했다. 이석범 선생은 이때 몰래 입수한 독립선언서를 가슴에 품고 3월 20일 귀향해 가족과 제자를 비롯해 신문화 교육을 받은 양양보통학교 졸업생 최인식을 참여시켜 뜻을 함께할 청장년총들을 모았다. 같은 시기에 개성 호수돈 여학

교에 재학하며 비밀결사대원으로 활동하던 조화벽 지사가 양양을 찾았다. 전국의 학교에서 벌어진 만세운동을 저지하기 위해 일본 경찰이 강제 휴교령을 내리자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때 버선목에 숨겨온 독립선언서를 교회 청년 지도자들에게 전달하면서 양양의 젊은층이 만세운동에 동참하게 된다.

이석범 선생과 조화벽 지사가 가져온 독립선언서는 양양 만세운동의 실마리가 되었고, 이석범 선생을 중심으로 한 중장년층의 유림, 함홍기 열사와 함께 신문화 교육을 받았던 양양 보통학교 졸업생, 조화벽 지사가 이끈 양양 감리교회 젊

은 층과 독립을 염원한 농민 세력들이 합쳐지면서 만세운동은 요원의 불꽃처럼 빠르게 번져나갔다.

4월 4일 양양 장날에 배포할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는 면별로 극비리에 구장 집이나 서당에서 제작하기로 하였는데, 임천리에서는 수십 명이 모여 태극기를 만들던 중 일부가 발각되어 이석범 선생을 비롯한 주모급 22명은 거사를 하루 앞두고 체포되고, 제작한 태극기 374매가 압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해 이웃 거마리의 김종태 집으로 본부를 옮기고 뒷산 곳집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밤새 수천 매의 태극기를 만들었다.



이석범 선생
(1859~1932)



조화벽 지사
(1895~1975)

양양면 임천리에서 태어나 1883년 초시에 합격했고 1899년 대한제국 중주원의관으로 국정 심의에 참여했으나 일제의 한일병합 통치에 벼슬을 버리고 낙향했다. 1913년 도천면 중도문리에서 쌍천서숙을 설립해 후진 양성과 항일 애국정신 함양에 노력했다.

1919년 양양 유림의 대표로서 고종 황제의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독립선언서를 몰래 숨겨오면서 양양 장날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거사를 하루 앞두고 체포됐으며, 원산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풀려났다.

손꼽히는 대한민국 여성독립운동가로 양양면 남문리에서 태어나 16세에 유학을 떠나 원산 성경학교를 거쳐 루씨여학교에서 수학한 후, 1919년 개성 호수돈 여학교 재학 중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학생 비밀결사대원으로 적극 참여하다 독립선언서를 숨겨 귀향해 양양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1925년 유관순 열사의 오빠인 유우석과 결혼하였고, 1932년 귀향해 가난으로 정규학교를 다니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정명 학원을 설립해 항일독립정신을 계승하였다.



양양장날 만세운동 재현 (사진제공 : 양양문화원)

양양 장터를 채운 만세의 함성

드디어 4월 4일, 양양 장날을 계기로 만세운동이 시작됐다. 당시 양양읍으로 들어오는 5개의 통로를 따라 베와 옥양목으로 만든 태극기를 든 각 마을의 만세 군중과 장꾼들이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시장과 경찰서가 내려다보이는 구교리 뒷산에서 만세를 외치며 신호탄을 울렸다.

서쪽 통로인 임천리로 통하는 길은 아침부터 만세 군중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다. 이때 양양읍내에서 교회 청년 1백여 명이 군중과 함께 만세를 시작하였고, 양양 변두리를 경비하던 경찰이 읍내로 몰려가자 5개의 통로를 통해 군중이 들어와 만세를 외쳤다. 읍내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들에 나가 있던 농부들도 모여들었다. 점점 불어난 만세 군중들은 장터를 중심으로 4천여 명이 집결했으며 장터와 군청, 경찰서 주변에서 계속해서 만세를 부르자 그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켰다.

오후가 되자 만세 군중들은 경찰서 마당에 모여 전날 임천리에서 검거된 주민들을 석방하고 일본은 자기 나라로 물러가

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격분한 군중은 돌을 던졌고, 손양면 가평리에서 만세군중을 이끌고 온 구장 함홍기 열사는 경찰서장실로 뛰어들어가 일본 경찰서장에게 화로를 들고 던지려 할 때 다른 경찰의 칼에 죽임을 당했다. 간리의 권병연 열사도 항의하다 쓰러졌으며, 서면 상평리의 김학구 열사는 경찰서로 돌진하다 일본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그리고 이 사건은 분노한 주민들의 참여를 불러와 더 많은 마을까지 만세운동이 확산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분노한 주민들의 의지는 극렬하게 불타올랐고, 4월 4일 일어난 만세운동은 9일까지 이어졌다. 5일에 열린 물치 장날에는 아침 일찍부터 군중이 모여들어 장터 쌀가게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으며 태극기를 높이 세워 목이 터져라 만세를 외쳤다. 강현면과 도천면 주민들은 대포리 주재소에서 합류했는데, 그 수가 1천여 명이 넘었다. 기세 당당하게 만세를 외쳤으며, 일본 경찰로부터 물러가겠다는 대답을 받고 군중은 해산했다. 6일에는 손양면, 강현면, 도천면 군중이 주먹밥을 싸서 양양 장터로 걸어와 만세를 부르며

만세고개로 이어진 양양군민의 강렬했던 항일운동

열기는 점점 거세져 갔다. 7일에는 농민 1천 5백여 명이 양양 경찰서를 습격해 체포한 주민들의 석방을 요구했고, 7일 밤에는 서면 농민 1백여 명이 면사무소를 습격했다. 유림과 기독교 세력뿐 아니라 천도교와 불교도 만세운동에 가세했다.

그리고 4월 9일, 기독교인과 유학자 그리고 각 마을의 구장들이 합심하여 양양읍 장터에서 군중과 장꾼들이 함께 만세 운동을 벌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양양면에는 일본 수비대가 주둔하고 있어 그곳으로 간다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만류에 따라 시위장소를 기사문리 주재소로 변경하였다. 이날 참여자들은 한창 바쁜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집집마다 한 사람씩 나왔으며 아이들도 만세 소리를 듣고 거리로 몰려나왔다. 현북면사무소에 모인 1천여 명의 군중은 소리 높여 만세를 부르면서 기사문리에 있는 주재소로 향했다. 그러나 언덕 아래에서 미리 잠복해 있던 일본 수비대와 경찰은 군중을 향해 총을 겨누다 시위대의 분위기가 고조되자 일제히 발포했다. 순식간에 선두에 섰던 9명이 순국하고 20여 명이 다쳤다. 마지막까지 치열한 만세운동이 벌어졌던 현장이 지금 유적비가 세워진 만세고개이다.

1919년 4월 4일부터 9일까지 전개된 양양 만세운동에는 최소 1만 5천여 명이 참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사망자 12명, 부



함충기, 권병연 추모비 (사진제공 : 양양문화원)

상자 43명, 체포 및 수형자는 142명, 태형을 받은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다. 성별과 나이, 신분과 종파를 초월하고 빼앗긴 주권을 찾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양양 만세운동을 기억하고자 우리군은 2000년 4월 9일, 만세고개에 양양 3.1 만세운동 유적비를 세웠다. 그리고 지난해 8월에 만세운동 당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행진했던 남문3리에 3.1 만세운동의 역사를 담은 벽화 등이 그려진 조화벽 거리가 조성됐다. 강렬했던 양양 만세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양양군민의 용기와 기개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가 늘 지나다니는 길을 새삼 들러본다. 그 길에서 바로 103년 전 이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목 놓아 외치고 또 외쳤던 만세의 함성이 들리는가.

〈글·사진 : 편집부〉



3.1만세운동 유적비 (사진제공 : 양양문화원)



발걸음 촌촌, 마을가는 길



양양읍 기정리

두 마을이 하나가 된 사연
새로운 활력을 기다리는 고령화 마을
국수 한 그릇의 정을 나누는 공동체 문화

봄이 소리도 없이 발밑에 도착했다. 거칠고 메말랐던 땅에 푸릇푸릇 새 생명이 돋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 생애에 봄날이라고 불리는 청춘(青春)도 이 계절처럼 매번 돌아오면 좋으련만, 세월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법. 그래서 중국의 시인 도연명도 '청춘은 다시 되돌리기 힘든 것이니 좋은 시절에 부지런히 힘을 쓰라'고 노래하지 않았던가.

지금은 고령화 마을이 된 기정리의 주민들에게도 청춘이 있었다. 잘 사는 마을을 만들어보겠다는 일념으로 주민 모두가 부지런히 힘쓰던 시절이 지금은 액자 속 추억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마을에 불어올 봄바람을 기다린다.



하나가 된 두 마을, 한마음으로 뭉친 주민들

기정리는 청곡리와 사천리, 감곡리와 포월리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마을이다. 청곡리에서 속초 방향으로 7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청곡교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서 왼편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기정리이다.

「본래 위산면(位山面)의 관할이었으나 1916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리(基里)와 정손리(丁巽里)를 통합하여 마을이름 첫 자를 따서 기정리(基丁里)라고 칭하였다. (...) 정손(丁巽)은 동리(洞里) 뒷산이 정자형(丁字形)으로 되고 손방에 있다하여 정손(丁巽)이라 칭한다. 기리는 옛날에 무천제를 올릴 때 이곳에 처음 터를 정한 곳이라 전해져 '텃골'이라 불렀고, 진사들이 물을 먹고 병이 나았다고 해서 '진수골'이라 고도 한다.」 – 양양문화원 홈페이지 <지명유래> 중

사이좋게 이름 하나씩을 나누어 가진 마을답게 주민 간의 관계도 돈독한데, 김회웅 노인회장은 기정리가 예전부터 '화합 잘되고 일 잘하는' 우수 마을로 손꼽혔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마을회관에 걸린 액자들 속에는 마을농악대, 부녀회 합창단, 선진지 견학, 양양 의용소방대 자매결연 등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주민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주민들이 점점 연로해지고, 마



을 사업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최근에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마을 사람들이 보여 준 열의가 헛된 것이라 할 수 있을까?

기정리는 민무늬토기를 비롯하여 반달돌칼, 돌도끼 등의 유적이 발견된 마을로, 지금까지도 마을 야산에 고인돌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는 양양의 역사문화를 보여주는 사료로서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그 시대 사람들은 아마 짐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자신들이 남긴 삶의 흔적이 후대에 '유적'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찬가지로 기정리 주민들이 걸어온 길 역시 충분히 가치 있는 행보였음을 기억해야 한다. 최선을 다한 과정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후대에 물려주고 싶은 마을 만들기

현재 53가구 100여 명(2022년 1월 기준)의 주민이 거주하는 기정리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60대를 훌쩍 넘기고, 젊은 세대를 찾아보기 힘든 고령화 마을이 되었다. 그럼에도 도태되지 않는 마을, 후대에 물려주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2007년에는 농촌장수마을로 선정되어 감나무 재배단지와 한우육성마을 조성 사업에 공을 들였지만, 아쉽게도 기정리 만의 특화사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010년대 후반에는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사업과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마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러나 선진지 견학과 주민 교육 등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만큼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다. 취임 6년 차에 접어든 김회영 이장은 아심 차게 추진한 마을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장직을 맡으면서 우리보다 후대를 위한 마을 사업을 해보자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 문제가 발생했고, 주민 관계가 와해할 위기에 처했죠. 마을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 갈등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내려놓



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전부 고령자이다 보니 같이 협조해서 움직이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에요.”

김회영 이장은 젊은 세대들이 마을에 들어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희망한다. 현재 마을에 전원주택을 짓고 도시와 시골을 오가며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그런 작은 움직임들이 정주로 이어진다면 기정리도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마음까지 푸근해지는 '국수 누르는 날'

농사가 주업인 기정리 주민들은 여전히 현역 농부로서 땅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다. 농한기가 끝나가는 2~3월에는 고추 모종 심기가 시작된다. 그렇게 겨우내 비어있던 땅을 차곡차곡 채우면서 한해 농사를 준비한다. 기정리에서는 고추 외에도 쌀, 옥수수, 들깨 등을 재배하는데, 특히 옥수수는 지역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자랑하며, 출하 시기도 다른 지역보다 빠른 덕분에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고 한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답게 공동체 문화가 살아있는 기정리에서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이 다 같이 모여 국수를 삶아 먹는 일이 일상이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에는 한 달에 네 번 정도 모여 함께 국수를 먹었다.

직접 메밀을 빻아 반죽하고 유압식 국수분틀로 면을 뽑는데, 주민들의 손맛이 좋아서 사서 먹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가 나오곤 했다. 국수를 삶는 날이면 다른 마을에서도 손님들이 찾

아왔다. 많을 때는 70명까지 모인 적도 있었다고 한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들러서 국수 한 그릇 얹어먹고 가도 이상할 게 없었다. 평범한 국수 한 그릇이지만, 그것은 사람 사이에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정이었고, 더불어 살아가는 즐거움이었다. 김희영 이장은 요즘 시내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국수는 언제 놀러 먹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그는 코로나19가 끝나면 다시 한번 예전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아 국수를 대접하고 싶다고 말한다.

기정리의 '국수 누르는 날'이 그저 추억 속에만 머무르는 풍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마을에 떠나는 이들보다 머무는 이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여러 개의 상을 맞대 놓고 빙 둘러앉아 국수를 나눠 먹는 다정한 모습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작은 바람이 큰 욕심이 아닌 날이 왔으면 좋겠다.

〈글·사진 : 편집부〉

세무회계과

양양의
살림살이를
책임집니다!



부서 : 세무회계과

규모 : 7팀 33명

업무 : 세정, 부과, 징수, 계약관리, 경리,
재산관리, 차량관리

2022년 올 한해 양양군의 살림살이 규모는 일반회계 3,597여억 원, 특별회계 251여억 원으로 총 3,849억원으로 책정돼, 지난해보다 총 485여억 원이 증액됐다. 이 모든 예산이 반드시 거쳐 가야 하는 부서가 있다. 양양군의 돈을 막힘없이 원활하게 들고나게 하고, 허투루 쟁는 돈이 없게 알뜰살뜰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는 '세무회계과'다. 군의 재산관리는 물론 세금 부과와 징수까지 군민의 실생활과도 밀접한 부서다. 도내서 5년 연속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세무회계과의 업무 전략과 비결을 살펴봤다.





최고의 팀워크가 자랑

양양군청 본관에 들어서면 바로 오른편에 세무회계과가 있다. 각종 세금 관련 민원인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 허가민원실과 함께 가장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부서 규모로는 양양군에서 허가민원실 다음으로 큰 부서다.

세부 업무별로 보면 세정, 부과, 징수, 계약관리, 경리, 재산

관리, 차량관리 총 7개 팀으로 나뉜다. 세무회계과의 업무 총괄을 맡고 있는 이영선 과장을 포함해 33명의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양양군 예산이 들고나는 최종 집행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분야별로 나눠진 7개의 팀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 소통과 화합이 잘 되는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한다.

도내서 5년 연속 우수 실적

7개의 분야별 팀 업무를 살펴보면 다른 듯 닮은 일이 상호보완하며 아귀가 잘 맞게 돌아간다.

먼저, 세정팀은 말 그대로 세무에 관한 행정업무를 하는 곳으로 세정시책 추진과 세입, 공공자금관리를 주력으로 한다. 부과팀은 취득세, 자동차세 등 일반적인 지방세 부과를 담당한다. 징수팀은 체납자들을 주로 상대하다 보니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온다. 그래도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하고 고액체납

자들에게 분납을 유도하면서 도내 징수율 최고 성적을 거두고 있다. 계약관리팀은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관련된 계약 업무를 모두 담당하다 보니 야근이 가장 많다. 업무가 많아진다는 건 주민들의 일도 늘어나는 것이니, 야근은 힘들지만 한편 보람도 크다고 한다. 계약관리팀이 바쁠수록 바로 옆 경리팀도 바빠진다. 계약서류가 경리팀에 넘어가면 최종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이다. 경리팀은 인건비, 사업비 예산을 집행하는 최종 창구다.

앞서 소개한 5개 팀은 돈이 오가는 금전 위주의 업무라면 재산관리팀은 양양군의 부동산 관리가 주요 업무다. 쉽게 말해 공유재산, 청사 관리 등 양양군의 토지나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끝으로 재산관리팀에서 업무가 분리된 차량관리팀은 양양군의 모든 관용 차량을 관리하고 운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그야말로 '양양군의 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7개의 팀이 각자의 위치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5년 연속 강원도 지방 세정 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해마다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수한 실적에 따른 포상금은 양양군 인재육성장학기금 기부로 이어져 훈훈함을 전한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적극 시책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코로나 피해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지방세 지원시책을 추진 중이다. 군민들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착한 임대인 재산세와 개인사업자 주민세, 영업용 차량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 정책이 추진됐다.

2021년 감면세액은 총 1,728건으로 총 1억 1천여만 원(군세 1억여 원 / 도세 1천여만 원)의 세제지원 혜택이 군민들에게 돌아가 숨통을 트이게 했다. 또한 쉽고 간편하게 지방세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양양군 지방세 환급'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했다. 스마트폰 환경에 맞게 24시간 생활밀착형 환급신청 서비스로 지난해 10월부터 추진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23년에는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타지역 지방세를 조회



할 수 있게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게, 군민 중심의 시책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어느 자자체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혈액순환이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것처럼 세무회계과는 양양군 재정을 막힘없이 원활하게 돌게 함으로써 건강한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다.

〈글·사진 : 편집부〉

양양, 어제 그리고 오늘

손양면 하왕도리



1966년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떠오르고

산 아래 작은 마을이 그려집니다.

간절한 이 그리움들을

사무쳐 오는 이 연정들을

달빛에 실어

당신께 보냅니다.



2022년

세상에

강변에 달빛이 곱다고

전화를 다 주시다니요.

흐르는 물 어디쯤 눈부시게 부서지는 소리

문득 들려옵니다.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 김용택〉



의원 간담회 개최



코로나19 예방 · 검사 관련 예산성립전 사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소기업 ·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는 2월 14일, 간담회를 열고 양양군 보건소 및 경제에너지과로부터 코로나 19 예방 · 검사 관련 예산성립 전 사용 계획을 보고받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발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검사수 요 급증 대응을 위하여 신속항원 검사소 부스 · 장비 임차 등 검사소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세 3천 5백만원을 사용하고자

하며, 경제에너지과에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기업 · 소상공인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방역물품 지원을 위한 국비 1억 3천 1백 4십만원을 예산성립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노고가 많은 공무원들에 감사를 표하며, 최근 유행하는 오미크론 변이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여 주길 당부하였다.

목재문화체험장 화재현장 처리작업에 따른 예산전용



2월 14일, 산림녹지과로부터 목재문화체험장 화재현장 처리 작업에 따른 예산전용 계획에 대하여 보고받았다.

지난 1월 24일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내 목재문화체험장 화재

발생에 따라, 잔존물 철거 및 구조물 안전진단 비용 1천 2백 만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들은 화재현장 정리를 철저히 하고 목재문화체험장이 조속히 재건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주문했다.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위촉

2월 28일, 의장실에서 제2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박봉균 의원, 고교연 前 기획감사실장, 오군주 前 손양면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활동하게 되며, 양양군이 작성한 결산자료를 분석·검토하고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양양군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양양군은 5월 31일까지 결산검사위원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의성 양양군의회 의장은 2021년도 결산검사위원직을 수행함에 감사를 표하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군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였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관동읍지(關東邑誌)에 수록된 양양부 관아(官衙)에 대해 알아본다

〈관동읍지 : 1871년에 편찬된 강원도 내 26개 군현의 읍지를 합편한 강원도 도지〉



〈사진제공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보기 :

- ① 아사(衙舍)
- ② 작청(作廳)
- ③ 사령청(使令廳)
- ④ 객사(客舍)
- ⑤ 태평루(太平樓)
- ⑥ 군청(軍廳)
- ⑦ 관노청(官奴廳)
- ⑧ 창(倉)
- ⑨ 형리청(刑吏廳)
- ⑩ 남문(南門)
- ⑪ 동문(東門)
- ⑫ 상운관(祥雲館)

■ 양양부의 일반현황

- 강역(疆域) : 동쪽으로 바다까지는 10리, 서쪽으로 춘천 경계까지는 50리, 남쪽으로는 강릉 경계까지는 70리, 북쪽으로는 간성 경계까지 35리에 이른다. 서쪽으로 서울까지 거리는 510리 6일 여정이고, 서남쪽으로 강원감영(江原監營)까지 거리는 400리 5일 여정이다.
- 방리(坊里) : 12개면-부내면(府內面), 위산면(位山面), 사현면(沙峴面), 부남면(部南面), 서면(西面), 동면(東面), 남면(南面), 현북면(縣北面), 현남면(縣南面), 강선면(降仙面), 도문면(道門面), 소천면(所川面)이었는데, 지금은 도문면과 소천면은 속초 시에 편입되었다.
- 관직(官職) : 부사(府使) 1인은 문관으로 당하관(堂下官) 종3품과 당상관(堂上官) 정3품 중에서 선발 임명되었으며 임기는 5년으로 지방의 삼권(三權)을 장악한 막강한 지위에서 양양지방의 향민을 다스렸다. 그 부사의 아래에는 좌수(座首) 1인과, 별감(別監) 3인, 군관(軍官) 15인, 아전 35인, 지인(知印) 16인, 사령(使令) 19인, 관노(官奴) 23인, 관비(官婢) 16인의 관원(官員)으로 양양도호부의 정무를 수행하였다.

■ 관아(官衙)의 의미와 역할

관아는 조선시대 관리들이 모여 나랏일을 처리하던 관공서로 일명 공해(公廡)라고도 불렀다. 관아에는 지금의 군수 격인 부사(府使)가 정무(政務)를 수행하는 동헌(東軒)이 있었고, 국왕의 전패(殿牌)가 모셔져 있는 객사가 있었으며 이곳에서는 부사의 이취임(移就任)의 예의(禮儀)를 행하였고, 조정에 고위직 인사 또는 암행어사와 같은 중앙관리가 부사를 감찰하려고 내려오면, 이 객사(客舍)에 거처하였다.

그 외 부사를 보좌하던 자문기관으로 고을 양반들의 대표자인 좌수와 별감이 집무하는 향청(鄉廳)과 육방(六房)의 아전들이 일을 보는 작청(作廳), 죄인의 죄를 다스리던 형리청(刑吏廳), 군사를 관장하는 군청(軍廳), 노비들이 사용하는 관노청(官奴廳), 관아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령청(使令廳) 등이 있었다.

■ 당시 읍성(邑城)의 관리 실태와 관아의 시설 규모

읍성의 실태는 돌로 쌓은 곳은 둘레가 403척(尺)이고, 높이가 5척(尺)이다. 흙으로 쌓은 것은 둘레가 2,825척이며 성안에는 우물 2곳이 있었다. 지금은 성벽 대부분이 무너져 버렸고, 다만 동·남·서문만 남아있다고 했다. 그리고 관아의 시설 규모는 객사(客舍) 35간, 아사(衙舍) 108간, 향청(鄉廳) 10간, 훈련청(訓練廳) 14간, 군기청(軍器廳) 10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관아와 함께 중요시한 태평루(太平樓)는 16간 규모로 객사 앞에 위치하였다. 고려 예종(睿宗) 연간(1111~1120)에 건립되었는데, 내부에는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외부에는 안평대군(安平大君) 필적 '태평로(太平樓)' 편액이 게시되었었다.

그 외에 태평루를 거쳐 간 고려와 조선의 명관 안죽(安軸) · 조준(趙浚) · 정주(鄭柱) · 이곡(李穀) 등의 시문이 빼곡히 게시되었었다. 세월 따라 태평의 운율(韻律)이 양양 고을에 메아리쳤었고, 양양읍성 동문밖에는 양양 남쪽의 인구역에서부터 멀리 북쪽 흉곡(欗谷)의 정덕역(貞德驛)까지 동해안 16개 역을 관장하던 상운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글·사진 : 양양문화원>



김홍배 문화관광해설사 강원도 스토리텔링대회 '대상' 수상

강원도가 주최하고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한 '2021년 강원도 문화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 경진대회'에서 김홍배 양양군 문화관광해설사가 대상을 수상했다.

1월 24일,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도내 문화관광해설사 133명, 관계공무원 19명을 포함한 252명이 참석했다.

김홍배 문화관광해설사는 양양의 '하조대 바우이야기'를 주제로 시연해 대상을 차지했다.

김 해설사는 "귓가에 걸린 마스크가 사라지고 입가에 미소가 걸리는 그날까지 하조대 바위들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부여하며 스토리를 개발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4월말까지 전기차 충전 방해 등 불법 행위 집중계도

지난해 7월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대상이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에서 전체 충전시설로 확대되었으며, 단속과 과태료 부과 권한이 각 지자체로 이관됐다.

이에, 양양군은 2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집중계도에 나선다.

단속 대상 불법 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충전 전후에도 일정시간(완속 충전시설 14시간, 급속 충전시설 2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충전방해 행위에 따라 10만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3차 백신접종 '선택 아닌 필수'

양양군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군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3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은 델타 변이에 비해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증도는 델타 변이에 비해 낮으나 인플루엔자보다는 다소 높게 보고되고 있다.



2차 접종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염예방 효과는 감소하고 중증예방 효과는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접종까지 마친 경우에는 중화항체가 상승해 감염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월 21일 00시 기준 양양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2차가 88.75%, 3차 접종은 70.93%이다.

양양군, 전 직원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운영

양양군은 공직자들의 청렴 마인드 제고를 위해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을 운영한다.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은 이미지, 카툰,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공무원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등을 전달한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바람직한 가치를 정립하고, 청렴소양과 반부패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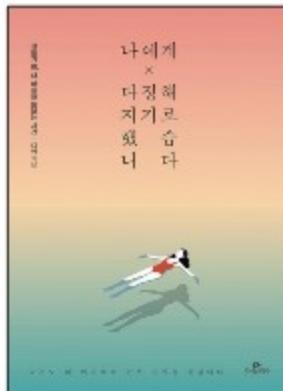
자가학습은 매주 1회에 내부행정망인 새울행정시스템의 팝업으로 게시되며, 접속 시 학습콘텐츠가 자동 실행되고 당일 학습 콘텐츠를 확인 후 업무를 개시하도록 설계됐다. 교육은 최초 청렴서약서 작성 후 청렴, 반부패, 공직자 윤리의식,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방지 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3월 책이야기

나에게 다정해지기로 했습니다

- | 디아 지음
- | 카시오페아
- | 2022. 2월



마음의 원리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거칠게 요동치는 마음을 다정하게 마주하여 고요하고 평온하게 가라앉히는 방법, 스스로를 지키면서 일상에 두 발을 딛고 잘 지내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마음의 방향을 멈추려면, 내가 나를 싫어하며 괴롭히지 않으려면, 내가 나에게 다정해지려면 안으로의 여행을 통해 내 마음을 아는 것이 먼저이다. 작가는 내 마음을 오염시키는 탐냄과 성냄을 버리고 자신에게 이로운 '바른 마음'의 힘을 키워나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나를 제대로 보는 일이 지금 여기에서 흔들림 없는 일상을 살아가도록 나를 다정하게 돌보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책 속 한 구절

간혹 마음을 공부하면서 왜 자신은 이렇게 느릿느릿 변화하는가, 혹은 도무지 변화의 기미가 안 보이는가 하고 짜증을 내거나 답답해하는데 이 역시 성냄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게 잘 안 된다고 화를 낸다면 참 웃긴 일이지요. 먹는 게 조절이 안 된다며 괜히 또 먹는 일과 같습니다. 실제로 화낼 상황에서 화가 줄어들기까지는 오래 걸립니다. 그것은 받아들여야 해요. 화를 내온 시간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그렇다면 '오래'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걸까요? 아마도 '자기 생각보다 오래'일 것입니다

예민한 부모를 위한 심리 수업

- | 일레인 N. 아론 지음
- | 김진주 옮김이
- | 청림Life
- | 2022. 2월



예민한 부모는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다. 단 그들이 가진 한 가지 약점이 보완될 경우에 말이다. 그들의 약점은 바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것이다. 예민한 부모는 시각, 청각, 촉각 등 모든 감각들을 항상 곤두세우고 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보다 많은 정보를 찾아내고 아주 사소한 차이까지도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쉽게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

예민한 부모는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면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지 못한다. 24시간 아이와 붙어 있는 상황은 그들에겐 치명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예민한 부모라면 반드시 휴식을 취하기를 권한다. 이 책에는 예민한 부모가 번아웃에 빠지지 않도록 틈틈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요령들이 있다.

책 속 한 구절

예민한 부모는 그저 재미있게 살거나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훌륭한 인품이나 인간관계 등으로 행복의 개념을 폭넓게 정의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조금 더 지혜롭게 이끌 수 있다. 이들은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에서 큰 기쁨을 느끼기에 아이를 위해 세심하게 계획하며, 때로 삶이 어두워보일지라도 긍정적인 요소들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한다.



양양작은영화관 상영 예정작



※ 영화와 개봉날짜는 배급사와 영화관의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양 작은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033-673-7050

<https://yangyang.scinema.org>

건강알리미

아이들을 노리는 봄철 감염병 수족구병 / 유행성이하선염

수족구병이란?

수족구병은 주로 5세 이하 영유아에서 많이 발생하며 학생 및 성인에서도 발생하지만 증상은 경미합니다. 콕사카비바이러스나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평균적으로 5월부터 발생이 본격적으로 증가하여 6월말(24~26주) 최대 발생합니다.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수족구병



유행성이하선염이란?

볼거리라고도 불리며, 주로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서 발생합니다. 약 2주 정도의 잠복기를 가진 후 발열, 두통, 근육통 등과 함께 귀밑 침샘(이하선)이 붓고 통증을 느끼게 되는 질환으로 사람 간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감염됩니다. 봄철 4월~6월과 10월~11월에 1월까지 발생합니다.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유행성이하선염



예방은 어떻게 하나요?

수족구병 · 유행성이하선염 공동 예방수칙

올바른 손씻기 – 흐르는 물에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 자주 씻기

올바른 기침예절 – 기침, 재채기를 할 때 휴지, 옷 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접촉 최소화 – 의심되면 바로 진료, 타인과의 접촉 최소화

만약 감염이 의심된다면?

등원/등교 하지 않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주세요!

아이와 접촉한 물건들을 꼼꼼하게 세척 · 소독해주세요!

영유아의 경우 발열에 주의하며 경과를 체크해주세요!

본격적인 등교가 시작되는 3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감염병 예방 건강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출처 : 질병관리청

정보꾸러미



양양군일자리지원센터 추천 일자리

양양군청 본관3층 경제에너지과
TEL. 033)670-2289 / FAX. 033)670-2303

사업장명	모집 인원	모집직종	근무시간	급 여
㈜한원	1명	경리사무원(간접)	09:00~18:00 (주5일)	월195만원
	1명	토목시공 기술자 (공무포함)	07:30~17:00 (주6일)	월400만원
㈜골든에스엔씨 (설해원)	5명	객실청소원	08:30~17:30 (주5일)	월229만원
그랑블루 글램핑 아영장	3명	청소 및 관리직원	09:00~17:30 14:00~22:30	월200만원이상
동양산업	1명	금속가공생산직 (가드레일 및 헌스)	08:00~17:00 (주5일)	연3,000만원
농업회사법인 ㈜설악산그린푸드	3명	식품가공생산직	09:00~18:00 (주5일)	월191만원이상
㈜소노에스티아이트 서비스(쏠비치)	20명	객실청소원	09:00~18:00 (주5일)	연2,298만원 이상
㈜아린오티크 (양양 솔비치)	4명	구내식당 조리원	3교대근무	시급 9,500원
㈜마총엘안에프	2명	식품생산관리원	09:00~18:00 (주5일)	월210만원
	4명	식품가공생산직	09:00~18:00 (주5일)	월191만원이상
푸른하늘환경(주)	1명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필수)	09:00~18:00 (주5일)	연2,400만원 ~3,200만원 (협의)
	1명	기계시설 정비원		
양양자원개발 합자회사	1명	경리사무원	09:00~18:00 (주5일)	월210만원
주식회사 영진상사	3명	플라스틱 제조원	09:00~18:00 (주5일)	월211만원
행복노인복지센터	2명	제가요양보호사	시간협의	시급 12,000원
일양증합금속(주)	2명	창호설치원 용접원	08:00~17:00 (주6일)	월230만원
진양산업	4명	총계가공 생산직	08:00~17:00 (주6일)	월230만원
대하촉량설계공사	1명	토목측량기술자	09:00~18:00 (주5일)	월200만원

2022년 군민정보화교육 일정안내(4월)

월별	기 간	접수기간	수 강 내 용
4월	4. 4. ~ 4. 28. 주간 (화,목) 야간 (월,수,목)	3. 28. ~ 4. 1.	(주간) 한글 실전반 (다양한 한글문서 작성과정) 스마트폰 활용 (파일 전송 & 한글 앱 활용) (야간) ITQ한글 및 ITQ엑셀 (강의 및 실습 병행)

- ▣ 교육장소 : 문화복지회관 3층 컴퓨터정보교실(제1교실)
- ▣ 교육인원 : 각반2명(선착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유동적 대응
- ▣ 교육시간 : (주간반) 10:00~12:00(화,목) / (야간반) 18:30~20:30(월,수,목)
- ▣ 신청방법 : 양양군청 자치행정과 (☎033-670-2116)
 - * 교육일정 및 수강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교육이 부득이하게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CO2 줄이기, 우리집부터 시작해요!

- ▣ 탄소포인트제란 무엇인가요?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 ▣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싶어요!
 1) 인터넷 신청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가입 (www.cpoint.or.kr)
 2) 방문 신청 –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또는 읍·면사무소
 3) 준비물 – 신분증, 고지서(고객번호), 계좌번호
 ※ 관리비에 포함 납부시 고객번호 별도 입력 불필요
- ▣ 탄소포인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현재 에너지 사용량과 과거 2년 간의 같은 월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여 탄소포인트를 산정합니다. (연 2회 산정)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10%	5,000P	750P	3,000P
10~15%	10,000P	1,500P	6,000P
15% 이상	15,000P	2,000P	8,000P

- ▣ 인센티브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탄소포인트 1P 당 1원의 인센티브 지급
 - 1) 지급주기 : 연 2회(6월, 12월)
 - 2) 지급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 ※ 주소 불일치, 계좌정보 오류 등의 사유 발생시 인센티브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문의사항 :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033-670-2219)

친환경차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성이 확대되었어요!

▣ 중요한 개정은 어떤게 개정되었나요

1) 전기충전소 의무 설치 확대

- 기존 아파트 50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
- 공영 / 공중이용이설 주차면수 100면 → 50면

2) 충전의무 시설의 수

- 시행일(22.1.28.) 이후 신축 : 총 주차면수의 5%
- 시행일(22.1.28.) 이전 기축 : 총 주차면수의 2%

3) 기축 시설별 설치 기한

- 공공시설 : 1년
- 공중이용시설 : 2년
- 아파트 : 3년

4) 충전방해 행위의 기준 추가 확대

- 전기자동차 / 하이브리드차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2시간의 범위를 지난 후에도 주차하는 행위
- 전기자동차 / 하이브리드차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4시간의 범위를 지난 후에도 주차하는 행위

▣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알고싶어요

- 1)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가 아닌 일반차량 주차 – 과태료 10만원
- 2) 충전방해행위 – 과태료 10만원
- 3) 충전방해행위 중 시설을 훼손하거나 구획선을 훼손 – 과태료 20만원

▣ 문의사항 :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 (☎033-670-2219)

2022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

(재)양양문화재단
2022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 안내

지원대상 양양군 소재 전문예술단체

지원규모 단체별 최대 5백만원
※ 심의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공고기간 '22. 02. 22.(화) ~ '22. 03. 23.(수)

접수기간 '22. 03. 14.(월) ~ '22. 03. 23.(수)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접수 & 문의 양양문화재단 문예진흥팀
(033- 671-7806)

양양문화재단

세부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yycf.or.kr) 공지사항을 확인하여주세요.

전세대출 문턱 낮추는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 보증대상

-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자로 변제금을 2년(24회차) 이상(프리워크아웃 지원자인 경우 12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납부자

*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MG신용정보(주)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30백만원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45백만원)

▣ 사회적책임 대상자 특례보증

- 보증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임주자, 소액임차인

- 보증한도

- 최대 30백만원(채권보전조치 시 45백만원)

▣ 징검다리 전세 특례보증

- 보증대상

- 배우자 합산 연소득 70백만원 이하인 자
-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연체 없이 이용 중이며, 제3금융권(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려 하는 자
- *새마을금고, 신협, 지역농협,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및 할부금융사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80%(공공임대주택은 90%) 이내 최대 1억 5000만원

※ 보증 이용 시 보증료 : 연 0.05%(최저보증료율 적용)

※ 신용평가결과 등에 따라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자사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사항 : 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동부지사 (☎033-660-4711~4714)

2022년도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2. 2. 3. ~ 3. 18.

▣ 신청장소 : 양양군 농업기술센터(축산경영팀)

▣ 지원대상

- 농촌지역 마당 및 울타리 안에서 풀어 놓고 기르는 1~3살 내외, 20kg미만인 실외사육견

▣ 사업량 : 20마리(임컷 우선이나 사업량 미달성시 수컷 지원 가능)

▣ 두당단가 : 암컷400천원/마리(보조 360, 자부담40)

수컷200천원/마리(보조 180, 자부담20)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내장형)병행

▣ 지원 우선 순위

- 65세 이상 고령자 >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중성화 수술비, 동물등록비 등 제반 비용

▣ 문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축산경영팀 (☎033-670-2459)

정보꾸러미

2022 취업희망여성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 상기과정은 센터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생활용공예 전문가과정

공예(라탄공예 등) 이론 및 실습
온라인 창업
창업관련 주요시책 교육

펫푸드전문가과정

펫푸드 메뉴 기초 실습
펫푸드 시그니처 메뉴개발 및 실습
건강한 펫푸드를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취·창업 교육

K-먹거리 취·창업과정

한국전통음식 이해 및 메뉴실습
창업형 메뉴개발 및 레시피실습
창업을 위한 전문교육

친환경&생활용공예 전문가과정

모집인원 | 20명

모집기간 | 3월 14일(월)까지

교육기간 | 22.03.21~05.30 (40일)

교육시간 | 09:00~13:00 (160시간)

모집대상 |

- 공예에 소질이 있고, 해당분야 전문가로 취·창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여성
- 공예분야 유경험자 및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담당문의 | 670-2890

펫푸드전문가과정

모집인원 | 20명

모집기간 | 4월 15일(금)까지

교육기간 | 22.04.26~05.31 (15일)

교육시간 | 09:00~13:00 (60시간)

모집대상 |

- 수제푸드 관련 취·창업에 관심있는 경력단절여성
- 취·창업 의지가 분명한 미취업 여성

담당문의 | 670-2983

K-먹거리 취·창업과정

모집인원 | 20명

모집기간 | 6월 2일(목)까지

교육기간 | 22.06.07~07.27 (30일)

교육시간 | 09:00~13:00 (120시간)

모집대상 |

- 활용한 카페, 공방, 소규모 창업에 관심이 있는 경력단절여성
- 개인 창업 또는 협동조합 취·창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여성
- 취업취약계층, 창업 유경험자, 관련 직종 경험자 우대

담당문의 | 670-2945

● 접수방법 방문접수(신분증지참) 구직신청서, 훈련참가신청서 작성

● 선발·특전 면접진행 후 교육생 선발 · 국비지원, 사후관리서비스지원

● 자부담금 5만원(취약계층 제외) 교육수료 시 환급

참여기준

- 개강일 기준 미취업자(일모아시스템 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
- 자영업자는 연간소득 8천만원 미만으로 개강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으로 확인)
 - *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는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 이만인 경우에 한함.
- 학점은행제 · 사이버대학 · 방송통신대학 · 야간대학(원) 재학생 중 개강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경우(고용보험 가입 이력서로 확인)
- 고졸 미취업자 및 6개월 이내 졸업예정자(대학, 대학원생)

참여 제한

- 직업훈련 연속 2회 참여
- 자영업자 중 창업 1년 미만으로
증빙서류 발급 불가능자
-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당해연도
1인 1과정만 참여 가능



양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코로나19 검사, 이렇게 해주세요!

2022년 2월 3일부터 전국 확대 적용됩니다.



일반군



관리자 감독 하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양성



음성
양성



진찰과 상담 후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양성



음성
양성

검사결과와 관계없이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



고위험군

- 역학연관자
- 의사유소견자
- 60세 이상
- 자가검사키트 양성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보건소 운영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무료

의료기관 운영
선별진료소
*검사비 무료, 진료비 별도

음성

양성

일반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진찰·검사를 시작으로 대응 역량 강화!

의료기관에서 '진단·치료·관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합니다.